

여자들_생리공감_만화.jpg



- 악녀일기 -

www.facebook.com/badgirltoon

생리 일주일 전



생리 3일전



생리 하루 전



생리 당일



생리 끝난 후

언니들 얘기를 듣고 싶어요~

유흥업소 관련 소식, 직접 겪은 사연 등 어떤 얘기도 보내주세요~ 원고료를 드립니다!
eloom2003@naver.com
/ 010-8230-6279

심리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010-8230-6279

마음이 힘들어서 끔찍하고 있는 언니들,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도 잠을 잘 수 없어 괴로워 하는 언니들, 답답함이 목까지 올라오지만 해소할 데 없어서 속앓이 하고 있는 언니들, 무기력하고 자꾸 눈물만 나오는 언니들 모두 모두 언제든 연락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 물론! 전문가와 연결해드립니다.

별별신문
16호

| 발행일자 | 2015년 7월 7일

| 발행인 | 별별신문_총송,용,유나,별,알렉스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도우미, 성매매 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찾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화류계 이야기, 유흥업소 서바이벌 가이드 화 특

“일 하다보면 언니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 성폭행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화특이 준비했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

- ▶ 2차는 모텔로만 나간다
: 아무리 친한 단골이라도 손님 집으로는 절대 2차를 가지 않는다.
- ▶ 모텔에서는 무조건 1층에 방을 잡는다.
: 안에서 큰소리가 나면 달려올 수 있도록. 카운터에서 제일 가까운 방이 좋다.
- ▶ 집어던질 수 있는 물건의 위치를 확인한다.(예:모텔 전화기)
: 위급한 상황에는 물건을 집어 던져서 큰소리를 내야 한다.
- ▶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라면 모텔로 이동하면서 주변의 큰 건물을 외우자.
: 은행, 편의점, 큰 건물을 외워서 내 위치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 주변 사람들에게 일정시간 이후에 내가 연락이 없으면 나를 찾아달라고 당부해두자.
- ▶ 핸드폰은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둔다.

“성폭력 발생시 대응하기”

-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 ▶ 한국성폭력상담소 :
02) 338-5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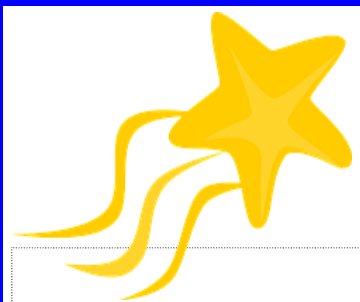
심리상담, 의료지원, 경찰동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하면서 생긴 일이라면 가까운 ‘성매매 피해지원 상담소’에 전화해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두려워마시고 필요할 때 꼭 이용하세요!

by. 화특

꼭 필요한 화류계 정보들이 가득! 네이버 블로그에서 ‘화특’을 찾아주세요!

화 특



별 기자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인터뷰 특집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여기를 나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언니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고민이시죠?

그래서 별별신문에서는 같은 고민을 거쳐 길을 찾고 있는 수진 언니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이쪽 일을 시작하셨나요?

A 중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돈을 많이 버는 술집이 있다’, ‘2차는 안 나간다’는 친구 말에 스무 살 때 이쪽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시작하던 날이 아직도 필름처럼 기억이 나고 그날 손님 얼굴까지도 기억이 나요. 일주일 만에 도망치듯 그 술집을 나왔고 이쪽 일을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식당보다 벌이는 좋으니까, 손에 바로 현찰이 들어오니깐.** 다시 이쪽 일 하다가 돈 조금 모이면 뭐라도 해보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오고... 그 반복이었어요.



어떤 일들을 해 보셨나요?

A 옷가게 점원, 서빙, 휴대폰 매장이랑 천원샵 운영 같은 것들을 했어요. 최근에는 집결지 일을 아예 접고 화장품 방문판매 일을 했구요. 처음에는 소득이 괜찮았는데 점점 적어져서, **현재는 한식조리사자격증을 준비하고 푸드코트 일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고 있어요.**

빛을 지신 적이 있나요?

A 이십대 후반 만나 7년간 부양했던 남자가 그렇게 가게를 제 명의로 열었어요. 그 빛은 고스란히 제게로 왔고요. 대출, 세금, 핸드폰 비용까지... 헤어지고 나니까 빛이 사오천 있더라구요. **언니들, 사랑해도 명의는 절대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대기업 다녀도 안돼요. **명의라는 말을 꺼내는 건 일단 나에게 해를 입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분간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A 언니들은 몸으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밑바닥부터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미 잘 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건 다른 문제예요. **좋은 모습으로 오는 사람, 이유 없이 베푸는 사람을 경계해야 해요. 자기가 돈 내고, 뭘 갖다 주고, 사주고, 조곤조곤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사기꾼일 수 있어요. 사람은 꺾어봐야 아는 거예요.** 제가 첫 신랑과 만날 때 주위 사람들과 연이 다 끊어졌었어요. 제발 헤어지라는 말 제가 안 들었으니까요. 헤어지면 연락하라고 했는데, 다행히 나중에 연락을 받아주더군요. 그렇게 제 주위에 남은 사람 중 한 명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친구예요.



지금 함께 사는 친구분 이야기도 궁금해요.

A 이쪽 일하면서 만난 오래 알고 지낸 친구예요. 그 친구를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을 했는데... 친구는 사실 이 일 열심히 해서 집도 있고 가족들도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있어도 늘 우울하고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난 그 1/10만 있어도 행복할 텐데 친구는 왜 그럴까? 아 이게 돈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구나, 싶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A 저도 그랬고, 다들 이쪽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놓아야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일을 그만뒀을 때 다른 일을 해서 생활이 될지 불안이 크니까요. 그런데 이쪽 일을 하면 할수록 바깥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간단한 usb 사용법 같은걸 모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쪽에 있을수록 이쪽에서의 삶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아무런 이상함도 못 느끼게 되고, 반대로 바깥 세상이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럴수록 믿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눠보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리지 않도록, 다른 길을 열어놓도록 하세요. 저는 책을 많이 읽은 게 힘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언니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들려주세요.

A 제가 일을 그만둘 때 주위에서 다 그 용기에 박수를 쳐준다고 했어요. **바깥 사람들은 몰라도 언니들은 알 거예요. 이쪽 일을 그만둔다는 건, 뭐라고 해야 하나, 다시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쪽과 바깥쪽, 마음이 두 갈래였고 그 중간에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음을 잡아나가는 건 본인이 아니면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도 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다 보면 다른 것들을 경험해 볼 용기가 날 거예요. [별]

이 바 닥 뉴스 NEWS



수면마취제 사용한 성구매/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혐의자 재판 열려...

지난 3월 성구매자가 관악구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14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아시나요? 그 사람은 알고 보니 **조건만남을 할 때마다 수면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들고 다니며 상대 여성들에게 강제로 수면마취제를 쓰고 여성들의 현금 및 물품을 갈취해온** 파렴치폭력범이었습니다.

이 파렴치범의 죄값에 대한 공판이 열렸는데요. 파렴치폭력범은 상대 여성들에게 수면마취제를 강제로 사용하고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으나 **기절시키려고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렴치범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피해여성들의 개인정보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등을 이유로 피해자 쪽에서 거부하여 결국 국민참여재판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6월에 있었던 세 번째 공판에서는 돈을 뺏은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여성들에게 성구매비용으로 지불했던 것을 회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허 참, 기가 차게 파렴치한 이 녀를 어쩔까요? [유나]